

정책브리프

본보고서

보고서명: 경기북부-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주요 시사점

저자: 김용덕, 김은지

발행처: 고양연구원

발행인: 김현호 주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WEB: www.goyang.re.kr TEL: 031-8073-8341

경기북부-남부 지역경제 비교와 주요 시사점

김용덕 자족경제연구실장,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

김은지 연구원

요약

- 경기도의 급격한 성장과 달리,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격차는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제 진단 필요
 -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 전국 대비 경기도의 비중도 커졌음
 - 하지만,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 격차는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두 지역의 지역경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격차 파악 필요
- 경기북부-남부의 지역경제 현황 및 비교 분석
 - (인구) 경기북부는 남부 대비 적은 인구 수에 반해,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두 지역의 남녀성비 격차 또한 심화
 - (생산) 경기남부의 GRDP는 경기북부의 약 4.74배로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, 경기남부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경기북부의 2.93배, 3.6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(고용)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남부가 북부보다 2.4%p 높으며,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남부가 북부보다 2.0%p, 0.5%p 높으며 두 지역 모두 2020년 이후 고용률 개선, 실업률 감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
 - (투자) 자본재수입액, 기계류수입액 모두 경기남부가 경기도 전체의 95%이상을 차지하며 두 지역간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
- 경기북부-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의 경제·산업 성장 전략 필요
 - 경기북부와 남부 간 인구수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정책, 기업유치, 고령화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
 - 경기북부 지역에 적합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북부지역 산업벨트 조성, 경기북부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외국인 유치, 지역벤처투자기관 설립 등 경기북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
 - 경기북부와 남부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경제·산업기반 조성 전략 필요

01 서론

■ 연구 배경 및 필요성

- 경기도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과 달리,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은 격차는 확대
 - 지난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, 경기도의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(이하 GRDP)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, 전국 대비 경기도의 비중도 커졌음
 - 하지만,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와 분단의 피해 등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이 지체
- 이에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,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발의 등을 내세우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북부와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격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

■ 연구 목적

-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지역경제 현황 및 격차 파악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 - 경기북부와 남부간의 일부지역 경제지표만을 비교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경제 데이터를 통한 현황 및 추이 파악 및 주요 시사점 도출

■ 연구 방법

- 경기북부-남부 지역경제 현황을 인구, 생산, 고용, 투자의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
- 경기도 권역 구분
 -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로 구분되지만,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편제에 따라 구분
 - (경기북부) 고양특례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양주시, 구리시, 포천시, 동두천시, 가평군, 연천군 (10개 도시)
 - (경기남부) 수원시, 용인시, 성남시, 부천시, 화성시, 안산시, 평택시, 시흥시, 김포시, 광주시, 광명시, 군포시, 오산시, 하남시, 이천시, 안성시, 의왕시, 양평군, 여주시, 과천시, 안양시 (21개 도시)

02 경기북부-남부 지역경제 비교

■ 인구부문

- 주민등록인구
 - (인구집중정도) 2022년 기준 경기북부 354.75만명(경기도의 26.1%), 경기남부 1,004.19만명(경기도의 73.9%)으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약 2.83배 높음
 - (연평균 증가율)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기북부 1.3%, 경기남부 1.2%로 경기북부가 0.1%p 우세함
 - (주민등록인구 평균) 지역에 따라 약 12만명 차이를 보이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0.9% 증가로 두 지역의 지역별 평균인구 차이 또한 지속될 전망
- 남녀성비
 - 경기북부의 경우 남녀성비가 지속적으로 하향세에 있지만 경기남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남녀성비가 상승하고 있어 경기북부는 여성인구 비중이, 경기남부는 남성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고령화
 -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은 경기북부 16.0%, 경기남부 13.6%로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보다 2.4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두 지역 모두 고령화율은 증가 추세, 지역간 고령화율 편차도 지속적인 소폭 증가 추세로 경기북부의 고령화가 남부보다 빠름

■ 생산부문

○ GRDP

-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는 491.3조원으로 우리나라 GDP(2,161.8조 원)의 22.8%를 차지
- (현황) 경기북부는 86조원으로 경기도의 17.4%, 경기남부는 406조원으로 경기도의 82.6%를 차지하여 경기북부보다 경기남부가 약 4.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(연평균증가율)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북부는 연평균 5.2%, 경기남부는 연평균 6.0%씩 증가하고 있어 두 지역의 GRDP 차이는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

○ 1인당 GRDP

- (현황) 경기북부 2,451만원, 경기남부 4,084만원으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약 1.67배
- (연평균증가율) 경기북부는 연평균 3.8% 증가, 경기남부는 연평균 4.6% 증가하여 지속적인 격차 발생 전망

○ 사업체 수

- 2019년 기준 경기도 사업체수는 934.3천 개(전국 4,176.5천 개 중 약 22.4% 차지)
- (현황) 2019년 경기북부 사업체 수 237.8천 개(경기도의 25.4%), 경기남부 사업체 수 696.6천 개(경기도의 74.6%)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약 2.93배
- (지역간 격차) 2019년 기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차이는 458.8천 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.3%씩 격차 확대
- (연평균증가율)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북부 3.7%, 경기남부 3.4%로 격차 소폭 감소 기대

○ 종사자 수

- (현황) 경기북부 115.38만명(경기도의 21.8%), 경기남부 414.89만명(경기도의 78.2%)으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의 3.6배
- (지역간 격차) 2019년 기준 종사자 수 차이는 299.51만명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.7%씩 확대
- (연평균증가율)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북부 4.2%, 경기남부 3.8%로 격차 소폭 감소 기대

■ 고용부문

○ 경제활동참가율

- 2022년 기준 경기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63.7%로 전체 63.9%보다 0.2%p 낮음
- (현황) 2022년 기준 경기북부 61.9%, 경기남부 64.3%으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2.4%p 높게 나타남
- (추이) 2020년 이후 경기북부 15세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(2.0%)보다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가율(4.4%)이 더 높아 두 지역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

○ 고용률

- (현황) 2022년 기준 경기북부 60.2%, 경기남부 62.2%로 경기북부가 2.0%p 낮음
- (추이) 2020년 이후 경기북부 15세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(2.0%)보다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(5.1%)이 높아 2020년 이후 고용률 크게 개선 (경기남부 또한 취업자 수가 2020년 이후 연평균 4.1% 증가하여 고용률 개선)

○ 실업률

- (현황) 2022년 기준 경기북부 2.7%, 경기남부 3.2%로 경기북부가 0.5%p 낮게 나타남
- (추이) 2020년 이후 두 지역 모두 실업률 하락세로 꾸준한 고용개선이 나타남

■ 투자부문

○ 자본재 수입액

- 2022년 기준 경기도 자본재 수입액은 403.1억 달러로 전체(891억 달러)의 45.2%를 차지
- (현황) 2022년 기준 경기북부 12.9억 달러(경기도의 3.2%), 경기남부 390.1억 달러(경기도의 96.8%)로 경기남부가 약 30.13배

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(추이)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본재 수입액은 경기북부 연평균 6.9%, 경기남부 연평균 19.8% 증가하여 두 지역간 차이는 확대 전망

○ 기계류 수입액

- 2022년 기준 경기도 기계류 수입액 349.3억 달러는 우리나라 전체(886억 달러)의 39.4% 차지

- (현황) 2022년 기준 경기북부 10.5억 달러(경기도의 3.0%), 경기남부 338.8억 달러(경기도의 97.0%)로 경기남부가 약 32.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(추이)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계류 수입액은 경기북부 연평균 7.2%, 경기남부 연평균 17.3% 증가하여 두 지역간 기계류 수입액 격차 확대 전망

03 요약 및 시사점

■ 경기북부-경기남부 지역간 격차 비교 요약

- (인구) 경기남부가 북부보다 2.83배 많으며, 두 지역간 인구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경기북부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며 남녀성비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
- (생산) 경기남부의 GRDP가 북부의 4.74배로 두 지역간 차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RDP의 차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(고용) 경기남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북부보다 2.4%p 높으나 앞으로 차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, 고용률과 취업률 모두 남부가 북부보다 높음
- (투자) 자본재 수입액과 기계류 수입액 모두 경기남부 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,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■ 주요 시사점

- 경기북부와 남부 간 인구수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북부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, 고령화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
- GDRP와 1인당 GRDP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보아 경기북부지역에 경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
 - 경기북부 지역에 적합한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선행될 필요
 -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산업벨트 조성 등 필요
- 자본재 수입액과 기계류 수입액은 경기남부에 집중되어있으며, 차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, 지역벤처투자기관 설립 등 경기북부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
-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규제완화,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선제적 대응 필요
- 경제자유구역 지정,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, 기업유치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경기북부의 경제·산업 성장 전략 세울 필요

김용덕 자족경제연구실 자족경제연구실장,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(kyd@goyang.re.kr, 031-8073-8319)

김은지 자족경제연구실 연구원 (ejk@goyang.re.kr, 031-8073-8371)